

<p>「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p>	<h1>주간 북한경제 동향</h1> <h2>Weekly DPRK Business Review</h2>	<p>2009년 8월 24일(월) 통권53호(제2권 제31호)</p>
<p>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p>	<p>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p>	<p>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p>

## 남북관계 개선 - 우리 정부의 진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즈음하여 북한은 김기남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을 대표단으로 공식 조문단을 파견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힘들다. 사람들의 기대 섞인 전망대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더욱 궁지에 몰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도저도 해석할 바 없이 노구를 이끌고 6·15선언을 일구어낸 민족적 지도자에 대한 인륜적 예의라고 해도 좋다.

문제는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한 의도라기보다는 이로 인해 조성된 국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관련하여 ‘핵폐기를 전제로 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핵폐기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우리 측의 협력과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조문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개방·3000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고 하여 현 정부 들어 최초의 고위급 회동이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당국자간 회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참으로 아찔하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정부의 말대로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도 아직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에만 주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이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진의가 북미관계 전환을 위한 사전적인 입지 조성의 필요성으로 형식적인 남북관계 조율

이 필요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위장평화 공세’라고 단정하며, 무시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그러면 그럴수록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 출입제한을 가했던 12·1조치를 해제한 진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성공단 활성화에 북한이 미적거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숙사 건립을 위한 당국 협의를 강제하는 것이 이런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내거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이러한 사전적인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누누이 언급했지만 북핵 폐기와 연계한 협력은 역으로 북핵 폐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데, 아무리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해도, 또 아무리 사전에 이미 합의가 됐다고 해도 정부가 기숙사 건립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파탄에 이른 남북관계를 풀고자 한다면 북한에 진정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전적인 적극 대처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북핵 연계론의 족쇄를 스스로 푸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의 대북정책 고수를 북한 조문단 앞에서 ‘당당하게’ 밝혔다고 한다. 아찔하고 허탈할 뿐이다. 기회는 잡는 자에게만 기회일 뿐이지 놓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조문과 특사 임무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 북한 대표단은 ‘모든 것이 잘 됐다’며 웃음을 머금었다고 한다. 그 말과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남북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길 수 있는 고리를 걸어놓았다는 의미일까?

## 제53호 목 차

### 이 주의 칼럼

MB ‘신 평화구상’, 무엇이 문제인가 ..... 2

### 이 주의 주요 기사

北 통전부장 김양건, 남북경협까지 총괄 .....	3
北, 백두산 관광 대비해 꾸준히 준비 .....	4
남북, 햇볕 속으로... '한반도 평화 전도사' DJ .....	5
평양 김치파는 햄버거점 북한식 패스트푸드점 .....	6
北, 12.1조치' 전면 해제 .....	7
북한, 美 뉴멕시코 에너지 개발 관심 .....	8
일정 연장·대화 의지... '다 만나고' 돌아간 북 '특사단' .....	9
North Korea envoys deliver message from Kim to South .....	10
中国、6カ国協議再開に向け外交攻勢へ .....	11

앞에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1

기획시리즈 / 연속기획 『북녘 산책』 《Ⅲ-1. 함경남도》 ..... 12

추천논문 / 김정일 건강 악화 이후 북한의 통치방식 변화와 대내외 정책 ..... 13

퀴즈로 풀어가는 北! / ..... 13

### 이 주의 북한 관련 행사

#### ● 2009 남남대화 제2차 화해공영포럼

▶주제: 남북관계와 인도주의-현황과 전망

▶일시 : 2009년 08월 25일(화) 14: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중앙일보

▶후원 : 통일부·콘라드아데나워 재단

### 이 주의 칼럼

## MB ‘신 평화구상’ 무엇이 문제인가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큰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 나’로 끝났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핵심적 대목을 보자. 이는 북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북이 핵 카드를 고집하는 것은 체제 안보나 대미 협상에서 더 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데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의 ‘선 비핵화’와 남의 ‘후 평화구상’ 제안은 다분히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선행 또는 병행되는 평화구상을 통해서만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우월주의와 일방주의가 이번 경축사에서도 그냥 녹아 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북한이 주도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 몫이 아니다. 신생 국가도 아닌 북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정상국가가 된다면 우리 중재 없이도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지원 체계를 구축,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대목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2007년 10·4 정상 선언과 12·1

남북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 간 고위급 회의와 의제가 이미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가. 이를 다시 새롭게 거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북 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 논의를 제안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남북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신뢰 구축 없이 어떻게 재래식 무기 감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 특히 군사훈련의 상호 통보 및 참관,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 군사정보 교환 및 교류, 공동 위기관리센터의 설치 운용, 그리고 공세적 무기의 후방 배치와 같은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재래식 군비 감축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관계가 양호했던 지난 진보정부에서도 북이 거부했던 재래식 군비 감축 제안을 요즈음 같은 대결 국면에서 북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이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이고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는 건설적 제안이다. 그러나 6·15와 10·4 선언에 대한 명시적 인정이 담보되지 않는 이러한 제안의 진정성을 북이 믿을까. 과거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하고 사전 조율을 한 후 8·15 경축사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제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축사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 국면에서 내걸었던 ‘원칙’에 대한 강조가 매몰차게 남아 있다. 반전의 지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이제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참뜻인지 심각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1549.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통전부장 김양건, 남북경협까지 총괄

-- 8월 17일 세계일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6일 면담을 소개하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배석자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사진)의 직책이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됐다. 아태평화위원장직은 2003년 10월 26일 김용순 위원장 사망 이후 후임자가 공개되지 않다 5년 9개월여만에 김 부장이 이 자리를 겸임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아태평화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그가 남북 당국간 교류는 물론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 현대그룹과의 협력사업을 포함한 남북 민간 교류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가 이미 아태평화위의 상위 기구인 통전부 부장으로 대남분야를 총괄해왔지만 아태평화위원장까지 맡아 현대와의 협력사업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지난해 대남 경제협력을 통합관리해온 내각 산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 민족경제연합회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김 부장은 남북 당국관계, 현대와의 협력사업에다 남북 민간경협까지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대남 실세'가 된 셈이다.

<전문>北-현대 5개 합의사항 공동보도문

-- 8월 17일 뉴시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 5가지 사항을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17일 보도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공동보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2009년 8월 16일 평양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행을 오랜 시간 접견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면서 현정은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주시었다.

이에 따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은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이다.

1.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며 금강산 제일봉인 비로봉에 대한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2.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

3.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을 곧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현대는 백두산관광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관광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5. 우리 민족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체98(2009)년 8월 17일 평양

북한 설명 비로봉 관광의 진수는

-- 8월 17일 연합뉴스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1천638m) 관광을 새로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금강 관광의 꽃'으로 불리는 비로봉 정상에 올라 금강산의 다양한 봉우리들과 해금강의 풍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전망이다.

비로봉 관광은 첫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가 지난 1997년 11월 출항한 후 10년 만인 2007년 11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개성관광과 함께 합의를 본 사안이다.

현 회장은 그해 12월 북측과 함께 비로봉 공동답사를 하고 지난해 4월 비로봉 관광을 시작하려 했으나 기상 사정 등으로 미룬 끝에 그해 7월 중순 실시하기 위해 북측과 최종 조율을 하던 중 남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금강산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오봉산(1천264m), 상등봉(1천229m), 옥녀봉(1천423m), 비로봉(1천638m), 월출봉(1천580m), 차일봉(1천529m) 줄기를 경계로 해 내륙을 향한 서쪽을 내금강, 바다를 향한 동쪽을 외금강이라고 부르며 바다경치를 해금강으로 일컫는다.

내금강 지역에 대한 관광은 2007년 봄 시범 관광을 거쳐 그해 6월부터 본격 이뤄졌지만, 온정각에서 버스로 50km를 이동해 표훈사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묘길상까지 4.3km를 도보로 관광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비로봉 관광 길이 열리면 표훈사-묘길상-비로봉 정상까지 왕복 16km의 완전한 관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코스는 도보로 7~8시간이 소요돼 내금강내 화선휴양소를 이용해 하룻밤을 묵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비로봉에 오르는 길은 도보코스 외에도 금강산호텔-내금강 단풍다리-비로봉 정상으로 이어지는 총 45km의 관광도로가 개설돼 있다.

비로봉 관광은 금강산 정상에 우뚝 선다는 의미 외에도 내.외금강과 해금강의 경치를 한눈에 시원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단연 장점으로 꼽힌다.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1996년 '백과사전출판사' 출간)에 따르면, 내금강은 지역적 특성과 탐승 노정에 따라 만천구역, 만폭구역, 백운대구역, 명경대구역, 망군대구역, 태상구역, 비로봉구역으로 나뉜다.

사전은 특히 비로봉구역에 대해 "비로봉과 영랑봉, 장군성과 장군봉, 월출봉과 일출봉 등 금강산 주봉들을 포괄한

다"며 "높은 봉우리에 펼쳐진 특이한 고산 식물 경관과 내.외금강 전망 경치로 이름 높다"고 설명했다.

사전은 비로봉이 "전망대로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며 남동쪽으로는 일출봉, 월출봉, 장군봉, 차일봉, 백마봉이 바라보이고 북쪽으로는 옥녀봉, 오봉산, 산등봉 등이 잇닿아 길게 뻗은 금강산 등줄기의 모습이 웅장하게 안겨오며, 동쪽으로는 해금강의 해만물상을 비롯한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득히 안겨온다고 설명했다.

비로봉에서 바라보는 해돋이와 저녁놀은 일품이라고 사전은 강조했다.

비로봉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관으로 '은사다리 금사다리'도 있다.

"사선교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는 수백m에 달하는 바위 줄기는 마치 하늘에 세워놓은 수다리와 같은데 아침 해가 비칠 때면 영롱한 은빛을 내고 저녁 노을이 비치면 황금빛을 뿌린다고 하여 이곳을 은사다리, 금사다리라고 한다"고 사전은 소개했다.

#### 北, 백두산 관광 대비해 꾸준히 준비

-- 8월 17일 조선일보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준비사업이 추진되는 데 따라" 시작기로 합의한 백두산 관광을 위해 북한은 이미 백두산지구의 삼지연공항 개발, 체육촌과 주택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 대형 대중목욕탕 건설 등 관광·레저 기반 닦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삼지연공항은 백두산의 해발 1천300m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인 3천314×60m짜리 콘크리트 포장 활주로 1개를 갖고 있다.

원래 이 공항은 북한 공군 제8항공사단 예하 27연대 작전기지로 북한 북동부 및 동해안 지역 방공임무를 담당하는 군용 공항이었으나 백두산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민간 전세기들도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천지까지는 셔틀버스 등 차량으로 접근한다.

직항편이 마련되면 남북을 오가게 될 항공기도 이 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해발 1천600여m인 배개봉에는 총면적 24만8천㎡로 북한의 "동계 체육기지"인 구산지구체육촌이 있다. 이 곳에는 빙상 경기장과 스키 경기장, 아이스하키 경기관 등이 있으며 '거리 스키주로(슬로프)', '고산 스키주로', 답사자와 관광객을 위한 '관광 스키주로'와 '스키 조약장(도약장)'이 조성돼 있다.

체육인 숙소와 청소년체육학교, 스키 휴게실 등의 부속 건물과 문화후생시설도 있으며 배개봉 밑에서 산마루까지 900여m의 경사면에는 시간당 수백명이 이동 가능한 '의자식 공중삭도(리프트)'도 설치됐다.

북한은 2006년에 해발 2천712m의 향도봉과 천지 호반을 잇는 1.3km 구간의 케이블카를 한번에 70~80명, 최대 100명씩 실어나를 수 있는 신형 케이블카로 교체하기도 했다.

또 2007년 10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백두산 기슭에 150여개의 주택단지가 조성됐다.

량강도 삼지연군에는 2003년 6월 백두산 관광객을 위한 대중목욕탕 '천지원'이 문을 열었다.

이 곳은 목욕탕, 물놀이장, 청량음료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남녀 각각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탕과 6개의 가족탕이 있다.

민간 방북이 제한되기 전까지 평양 등에 간 남한 방문객이 백두산을 당일 코스로 관광하거나 숙박할 경우 소백수초대소나 배개봉호텔에 체류했다.

소백수초대소는 2층 서구식 방갈로형 28동, 총 118실로 구성됐고 식당, 영화관, 노래방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배개봉 기슭에 자리잡은 3층 호텔인 배개봉호텔은 2개동에 150여명이 묵을 수 있다. 부대시설로 서점, 기념품상점, 영화관, 당구장 등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기존의 중국 경유노선(인천-엔지 약 2시간30분, 엔지-백두산 육로이동 약 5시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 1시간-1시간30분 정도로 줄어든 것이라고 지난 2007년 추산했다.

삼지연공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약 40분이면 천지에도달하므로 이동시간만 따질 경우 인천공항에서 천지까지 가는 데 드는 시간은 2시간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남북은 예전에도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다가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된 게 여러차례다.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11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연내 백두산 관광 2회 이상 실시"에 합의했지만 후속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남북은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유야무야됐다.

#### 북한, 여성들에게 '바지 착용' 허용

-- 8월 18일 노컷뉴스

북한이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강력히 규제해 왔으나, 최근 이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선양에서 한국상품 전문도매상을 하고 있는 유모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해가는 북한의 평양거주 단골 상인이 8월부터 국가에서 여자들에게도 바지를 입도록 허용해 남조선제 여자 바지를 가져다 팔고 싶다"면서 "견본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유 씨는 그러나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밝은 회색이나, 연한 연두색 청색계통의 점잖은 색깔을 원했으며, 무늬가 있는 바지와 통이 넓은 나팔바지, 체형이 드러날 정도로 몸에 달라붙는 바지와 반바지, 청바지 등은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단동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북한 신의주에 살고 있는 화교 장모 씨도 "북한당국의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진 문건이나 발표를 듣지는 못했지만, 신의주에도 이 달부터 여성들에게 바지 착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소식을 자주 접하는 중국 단동에 거주하고 있

는 북한 출신 화교 가운데는 "북한에서 여성들에게 바지 착용을 허용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북한당국이 정책변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아닌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북지원사업을 수년째 하고 있는 대북지원단체 대표들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 여성들에게 바지 착용을 허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면서 "잘 믿어지지 않지만 북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당국이 여성들에게 바지착용을 금지해온 근거는 고 김일성 주석이 "여성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은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발언 이후 김일성 주석의 교시사항으로 지켜져왔다는 설과 1980년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여성의 민족의상인 치마 저고리는 우리민족의 자랑이다"라는 발언을 하고부터라는 설이 있다.

북한, 옥수수쌀 가격 60%가량 폭등

-- 8월 18일 노컷뉴스

북한의 옥수수쌀 가격 60% 정도 폭등하는 등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북한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방송인 열린북한방송 18일 소식지에서 "북한의 쌀 가격은 큰 변화가 없지만, 6월과 7월 신의주와 평양의 옥수수쌀 가격은 1kg에 900~1,000원에서 8월 10일 현재 신의주는 1,400~1,500원, 평양은 1,500~1,600원으로올라 두 달 전에 비해 가격이 60%가량 폭등했다"고 전했다.

회령과 해산도 각각 1,300~1,400원, 1,600~1,700원으로 옥수수쌀 가격이 60%이상 상승했다.

북한에서는 8월쯤부터 옥수수를 수확하고 옥수수를 옥수수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리는 기간을 포함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옥수수쌀 가격은 보통 8월에 상승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옥수수쌀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옥수수쌀 가격이 폭등 한 것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늘면서 가격이 쌀의 절반 정도인 옥수수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쌀값은 변동 폭은 완만해 평양과 신의주를 기준으로 6, 7월 1kg당 2,000원에서 8월에는 2,100원대로 변동 폭이 거의 없으며, 회령은 6,7월 2,200원 수준에서 1,800원으로 내렸다.

북한의 옥수수쌀은 옥수수알의 껍질을 벗기고 쌀 정도의 크기로 부수어 만든 일명 강냉이쌀이나 통강냉이쌀로도 불리고 있다.

한편 그동안 쌀 배급이 나오던 함경북도 회령시와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8월부터 감자 배급을 주기 시작해 가구마다 15일 분의 감자배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평양시와 더불어 함북 회령과 양강도 김정숙군은 북한에서 식량배급을 주는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 업체 "기숙사 건설해달라"

-- 8월 18일 매일경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김학

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북측 근로자 기숙사를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육로 통행과 체류 정상화,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등 5개항 합의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입주 기업인들도 (개성공단)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북한 근로자 합숙소 건설과 출퇴근 도로 정비 등을 남북한 합의하에 신속히 착수해달라"며 "이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 햇볕 속으로... '한반도 평화 전도사' DJ

-- 8월 18일 노컷뉴스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27분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특별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해 1시간 여를 비행한 끝에 평양순안공항에 내려앉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환영 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뜨겁게 포옹한 뒤 의장대를 사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시민 여러분"을 시작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반세기동안 막혀있던 남북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뒤 55년 만에 남북한의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족의 운명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시작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두 차례 정상 회담을 갖고 5개 항에 합의한 뒤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 등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의 산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 대통령은 국내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평화 만들기'(Peace-making)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한반도와 주변국에 각인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북한 강경정책을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투자제한 업종의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였다.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을 들면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





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습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햇볕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국민의 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18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되었으며 지난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100만명이 넘는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둘러보는 기록을 남겼다.

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 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하지만 1999년과 2002년 발생한 서해 교전과 금강산 관광객 역류사건은 포용정책의 폐기론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여론은 포용정책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전술적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평가했을 때도 여론의 비난이 거셌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 당국에 믿음을 주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토대로 2000년 3월 10일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선언'이 나왔고 현대아산의 협조로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은 겨레의 뜨거운 열기속에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을 넘어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출발이며 반세기가 넘는 상호 대립과 갈등의 분단 55년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진도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영면의 길로 떠났지만 그가 남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는 훈풍이 되어 언젠가는 얼어붙은 한반도를 녹이고 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조전 전문

-- 8월 19일 노컷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

하여 리희호 녀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석하게 서거하였지만 그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남긴 공적은 민족과 함께 길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김 정 일

주체98(2009)년 8월 19일

#### 평양 김치파는 햄버거점 북한식 패스트푸드점

-- 8월 19일 헤럴드경제

북한의 평양시내에 북한식 햄버거 점이 최근 첫 선을 보여 고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런민(人民)일보는 18일 북한 평양시내 모란봉구 4.25문화궁전 인근에 서방 패스트 푸드점의 분위기를 갖춘 북한 특색의 햄버거점이 등장했다고 평양 현지발로 보도했다.

이 패스트 푸드점은 싱가포르 기업이 자본을 대고 북한은 장소제공과 함께 종업원 원재료를 떠맡는다는 계약하에 지난 6월 합작 설립된 것으로, 중국 도시의 서방 패스트 푸드점과 흡사하게 인터리어가 꾸며진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이 패스트 푸드점은 햄버거나 KFC처럼 그림책 세트 메뉴를 갖추고 김치를 포함해 총 20여개의 세트로 정해진 간편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세트에는 특히 햄버거외에도 김치와 감자튀김 생맥주 등 북한 특색을 지닌 음식도 포함돼 있다.

세트 메뉴 이름은 모두 한글로 표시했으며 서양 음식에 익숙치 못한 북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햄버거의 경우 '소고기를 끼워넣은 빵', 생선 햄버거는 '생선 살코기를 다져 넣은 빵' 등으로 의역해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대는 소고기 햄버거(소고기를 끼워넣은 빵)와 감자튀김 김치를 포함한 세트 메뉴가 중국돈(RMB)으로 40위안에 달해 중국 주요 도시의 햄버거점 판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생 교사 경찰 등 국내 고객을 중심으로 하루 200여명이 가게를 찾고 있으며 최근들어 점포 소재지가 알려지면서 평양주재 외국인및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 남북교역 11개월째 감소

-- 8월 19일 매일경제

7월에도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써 남북교역 규모는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남북교역 규모는 1억 4025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78% 수준에 머물렀다. 반출 건수는 3648건, 반출액은 6472만달러였고 반입 건수는 3012건, 반입액은 7526만달러로 집계됐다. 북한으로 나간 물품은 경공업품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 중 64%에 달했다. 특히 합성 섬유 직물을 비롯한 직물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북한에서 들어온 품목은 섬유·의류(3062만달러)가 36%로

가장 많았고, 어류(1024만달러)도 약 14%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1080만달러 적자로 남북교역 적자 현상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지속됐다. 남북교역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교역 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3억2865만달러에서 지난해 18억2078만달러까지 늘어났다.

#### "北, 10년간 생산중단 비날론공장 내년 재가동"

-- 8월 20일 연합뉴스

북한이 '주체적 공업'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가 연내 완공돼 내년부터 비날론 생산이 10여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2007년 시작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년에는 비날론이 다시 쏟아져 나온다"고 기업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날론은 석회석과 무연탄에서 얻은 카바이드를 원료로 합성한 폴리비닐알코올로 만든 합성섬유로, 북한에선 '주체섬유'라고도 부른다.

1961년 5월 준공된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연간 생산능력이 5만t이지만 시설이 노후한 데다 원료 부족으로 지난 10년간 비날론 생산이 중단됐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 불리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적 시련의 시기"에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기업소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소는 "생산공정의 마지막에 나오는 비날론은 단념하고 일부 중간제품만 간신히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었고 "생산체계의 노후화는 촉진"돼 결국 "과거 10년간 비날론 생산은 중단돼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업소는 2000년대 들어 염화비닐직장, 가성소다직장을 "자체로 개진"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나, 2007년 8월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주체적 공업 부활의 계기점"이 돼 "화학공업 재생을 위한 단계별 계획에 시동이 걸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후 "국가적인 관심 속에" 기업소 개진을 추진하는 전문건설집단이 구성되고 설비, 건물 24개동을 현대화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생산공정이 완전 가동되면 500여종의 화학제품이 생산되며, 중간제품인 염화비닐은 경공업 원료로, 가성소다는 비누의 원료로, 염산은 발효간장 등 기초식품의 원료로 각각 쓰인다.

신문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2.8비날론에서 화학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하여 경공업을 비롯한 다른 경제부문의 생산이 큰 지장을 받았다"며 "비날론의 생산 재개는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화학제품들의 공급체계도 다시 정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한국적십자 "26~28일 금강산서 회담하자"

-- 8월 20일 헤럴드경제

남북이 오는 10월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측 적십자사가 20일 북측에 오는 26~28일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이에 화답해 남북간 본격적인 대화 재개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대한적십자사(한적) 유종하 총재는 이날 오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 추석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한적은 아울러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단절된 판문점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도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北, 12.1조치' 전면 해제

-- 8월 21일 연합뉴스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시행해온 이른바 '12.1조치'를 21일부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북측은 20일 오후 5시30분께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어 북측은 오후 9시40분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21일부터 경의선 철도(판문역-파주역)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개성공단 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체류를 21일부로 이전과 같이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1조치'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남겨둔 개성관광 재개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회됐다.

다만 육로 통행의 경우 기술적 절차가 필요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일주일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10~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도출한 현대측과의 5개항 합의에서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 언정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작년 12월1일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규정한 '12.1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 횡수(시간대)를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귀환)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했다.

또 하루 각 2차례씩 출.입경을 허용하던 동해선 출입을 각각 한 주에 1차례씩만 허용기로 했다.

통행 시간대별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200

대에서 250명.150대로 각각 감축했으며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는 880명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폐쇄, 경의선 철도운행 중단, 개성관광 중단 등 조치도 단행했다.

남북은 이날 또 북측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간 연락을 위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를 임시 개설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한 조의 방문단과 관련한 연락 문제를 위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개설을 요구했고 북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11월 북이 끊었던 적십자 채널의 전면적 복원 은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북한 조의방문단의 연락을 위한 전화를 개설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 닭고기 전문점이 南北 소통창구 역할 특출

-- 8월 21일 아시아경제

최근 남북간 긴장관계가 화해무드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북한의 평양 한복판에 세운 치킨전문점이 민간 외교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평양 모란봉 구역 개신문동에 문을 연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은 국내에서 치킨전문점 사업을 하는 최원호(50)맞대로손담 대표가 2005년부터 6차례 이상 북한에 들락거리며 당국자들을 설득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남북합작 음식점이다.

북한에 진출한 국내 사업체들이 남북 관계가 경직될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은 변함없이 북한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식당은 330.6㎡(100평) 규모로 최대 15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음식점으로 북한 락원무역총회사와 합작운영 계약을 맺고 1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아 운영하고 있다.

평양 시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위치해 주로 가족 손님이 많은 이곳은 현재 하루 100여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로 장사진 이를 만큼 인기가 높다. 또 20~30대 젊은층들이 데이트 코스로 활용하는 레스토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닭은 200마리 정도로 월 매출은 주류 등을 포함해 2000만원(원화 기준)에 달한다. 수익은 연말 정산을 기준으로 맞대로손담과 락원이 각각 7대3 비율로 나눈다. 지난해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원호 대표는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었다"며 "사회체제는 다르지만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것은 닭찜 '칠향

계'. 북한 주민들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칠향계 평양찜닭은 도라지와 미나리, 생강, 계피 등 몸을 보하고 기혈을 돕는 7가지 향기의 부재료가 들어간 웰빙 보양식이다. 특히 칠향계는 400년전 이순신 장군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자체 개발한 특제 소스로 만든 닭양념구이, 닭떡볶음, 닭고기튀김(튀김) 등 10여가지 메뉴들도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은 올해 안에 2호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 대만 여행사, 9월 중 두 차례 북한 관광 계획

-- 8월 21일 뉴시스

북한이 서방 세계와의 긴장 끝에 외국 관광객에 대한 문호를 다시 개방함에 따라 대만의 한 여행사가 북한 관광 및 무역박람회 참관을 위해 여행객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류(Liu)라는 성만 밝힌 대만 스카이 조이 트래블의 한 관계자는 첫 관광단이 9월17일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며 6일 간 북한 관광을 한다고 DPA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류는 이어 관광단은 평양의 지하철과 학생소년궁전을 둘러보고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을 둘러보고 금강산 관광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또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1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평양 능라도의 5·1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90분 간의 아리랑 공연 관람이라고 말했다.

조이 스카이 측은 또 제5차 평양 국제무역박람회 참관을 위해 9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 대만 기업인들의 북한 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류는 일부 기업인들이 평양 무역박람회 참가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충분한 인원을 모집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는 최소 16명이 참가해야 여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美 뉴멕시코 에너지 개발 관심

-- 8월 21일 노컷뉴스

북한은 만성적인 에너지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펠 연구원은 "북한은 석탄과 석유같은 연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중소 규모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이 적합하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말했다.

히펠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중소형 수력 발전에 치중하고 있으나,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노틸러스연구소가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에서 진행한 풍력발전기 건설사업과 '월



드비전'이 2003년 북한에 설치한 태양열 발전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전 방식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이후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북한의 경우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이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만 가능해 시범적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켈 연구원은 "유엔의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뉴멕시코에서 개발 중인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그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멕시코 주는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개발에 가장 관심이 큰 주 가운데 하나로 클린턴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리처드슨 주지사는 태양열이 풍부한 뉴멕시코를 '재생에너지 분야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히켈 연구원은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이 리처드슨 주지사와의 만남을 통해 뉴멕시코가 개발 중인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평양 15년래 최고 무더위"

-- 8월 21일 중앙일보

북한 평양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등 "15년 이래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전했다.

신문은 "평양은 한해치고도 가장 더운 때인 삼복(7.14~8.13)을 여러날째 넘긴 후이지만 30도 이상의 무더위는 아직 가시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의 고온현상은 연례적인 삼복철 때의 무더위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평양에선 중복(7.24) 이후인 지난달 27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온현상이 시작됐으며, 말복(8.13)을 전후한 지난 12~16일에는 낮 최고기온 34도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15일과 16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평균 36.5도로 올라 평년보다 7.3도나 높았다.

북한의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연구소의 고상복(64) 소장은 평양의 지속적인 고온현상이 "15년 이래 최고기록"이라고 말했다.

평양에선 1994년 7월 22~27일에 낮 최고기온이 평균 35도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이번의 지속적인 무더위 기간(8.12~16)에는 최고기온이 평균 35.2도로 15년 전에 비해 0.2도 더 높았다.

우리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 사이에 7월28일(29.9도), 8월 6일(27.5도)과 11일(27.6도)은 평양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미만으로 기록됐다.

평양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 고온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 조선신보는 설명하고 지난 16일에는 평양(36.6도), 평성, 남포, 강계, 중강, 희천 등 6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말했다.

신문은 삼복철 기간에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갔으면서 "그 기간 서해안 지방의 강수량도 평년의 4.9%밖에 안됐고 습도도 78%로 평년보다 6% 낮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국가적인 관심 속에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실무적인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일정 연장·대화 의지... '다 만나고' 돌아간 북 '특사단'

-- 8월 23일 경향신문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조의방문단'은 '조문단' 그 이상이였다. 당초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박3일간 서울에 머물러 만나는 모든 남측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하는 등 '특사' 역할을 한 것은 결정판이었다.

조문단은 21일 오후 3시쯤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 국회에 마련된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김 위원장이 보낸 조화를 헌화하고 조문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김대중평화센터를 찾아 이회호 여사를 위로했다.

#### 북한 조문단의 2박3일 일정

21일	• 오후 2시 : 평양 출발(고려항공 특별기)
	• 오후 3시 : 김포공항 도착
	• 오후 3시53분 : 국회 도착,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 조문
	• 오후 4시15분 : 김형오 국회의장과 환담(국회의장실)
	• 오후 5시 : 이회호 여사 면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전 전달 (동교동 김대중평화센터)
22일	• 오후 7시50분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만찬 (속소인 그랜드힐튼호텔)
	• 오전 10시20분 :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 면담(그랜드힐튼호텔)
	• 오후 1시30분 : 홍양호 통일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와 오찬(그랜드힐튼호텔)
22일	• 오후 7시 :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만찬(그랜드힐튼호텔)
	• 오전 9시 : 이명박 대통령 예방, 김정일 국방위원장 구두 메시지 전달
	• 낮 12시10분 : 김포공항 출발(고려항공 특별기)
	• 오후 2시10분 : 평양 도착

공식 일정은 이 여사 위문으로 모두 끝난 셈이었지만 조문단은 이 과정에서 '서울행'의 '또다른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첫날부터 남측 인사들에게 "누구와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강한 대화 의지를 내보였다. 김기남 비서는 김형오 의장에게 "내일까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회호 여사를 위로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홍양호 통일부 차관에게는 "다 만나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이날 북측 조문단과 김대중평화센터 측과의 만찬에 배석했

다. 조문단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였고, 시간은 '22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조문단은 방남 이틀째인 22일 이 대통령 면담 의사를 밝히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다. 김기남 비서는 김대중 평화센터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배석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에게 "대통령을 만나 의도와 진정성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양건 부장은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왔다"면서 세 차례 '특사'라는 말을 하고, "누구든 만나서 모든 분야에서 톱 놓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다. 김양건 부장은 이어진 현 장관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대통령 면담을 다시 희망했다.

대통령 면담에 대한 정부의 확답이 늦어지자 조문단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귀환을 하루 연장했고, 결국 23일 오전 9시부터 30분간 이 대통령을 면담했다.

전문가들은 조문단의 태도가 '무력시위→대화국면'으로 바뀐 북한의 대외전략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소극적인 남측에 대화 공세를 폈고 결국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켰다. 북측의 적극적 전략이 일단 효력을 발휘한 셈이다.

#### 관심 쏠리는 '김정일 구두 메시지'

-- 8월 23일 한겨레

북쪽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선 특사나 남북 정상회담 등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구두메시지와 관련해, "그 내용은 여러가지 민감성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메시지의 민감성 때문이 아니라 외교 관례상 서로 원하지 않을 경우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와 관련한 전향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를 잊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내용이라는 질문에 "'새롭게'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북쪽이 과연 특사 교환이나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는지에 있다. 우선 특사 교환과 관련해 정부 핵심관계자는 "분위기로 볼 때 그런 관측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쪽이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가능성과 관련해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갑자기 그렇게까지 갔겠냐"며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쪽이 특사를 보냈기 때문에 남쪽에도 특사 파견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를 크게 풀어가자는 정도의 제안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

온다. 이 대통령이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해온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언급하진 않더라도, 언급 속에 여러가지 사인과 코드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North Korea envoys deliver message from Kim to South** 북한 조문특사단은 김정일의 메시지를 남쪽에 전했다

-- 8월 22일 Reuters

출처:<http://www.reuters.com/article/topNews/idUSTRE57M08G20090823>

SEOUL (Reuters) -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delivered a message from leader Kim Jong-il to the South's president in a meeting on Sunday, in what was likely the first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leaders of the rival Koreas.

"The North delegation delivered leader Kim Jong-il's verbal message as to the progress in North-South Korean cooperation," presidential spokesman Lee Dong-kwan said in a televised briefing.

북한고위 관리는 일요일 남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두 라이벌 코리아 정상간의 첫번째 직접대화에 가까운 것이다.

북한 대표단은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한 협력에 관한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텔레비전 브리핑에서 말했다.

**Red Cross proposes inter-Korean reunion** 대한 적십자사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

-- 8월 22일 United Press International

출처:[http://www.upi.com/Top\\_News/2009/08/22/Red-Cross-proposes-inter-Korean-reunion/UPI-67381250963715/](http://www.upi.com/Top_News/2009/08/22/Red-Cross-proposes-inter-Korean-reunion/UPI-67381250963715/)

The South Korea Red Cross says it has approached its North Korean counterpart about resuming reunions between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suggested it would participate in talks aimed at reunions to be held in the north Oct. 3 on Chuseok, the Korean Thanksgiving, authorities said.

The South Korean Red Cross is to propose that 100 family members from the South meet with about 250 relatives from the north for three days at the Mount Kumgang resort. The last reunion was held in October 2007 in South Korea.

대한 적십자사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상봉의 재개에 대해 북한의 제안에 의견 접근을 했다. 10월 3일 추석에 열리는 것을 목표로 북한은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당국은 말했다. 대한 적십자사는 100명의 남측 가족이 북한의 250명의 친척을 만나는 것으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3일 동안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2007년 10월 남한에서 열렸었다.

中国、6カ国協議再開に向け外交攻勢へ 중국, 6자 회담 재개를 향해 외교 공세로

-- 8월 22일 산케이신문

【北京=野口東秀】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と北朝鮮の弔問団との会談が実現した場合、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6カ国協議の議長国を務める中国が、協議再開に向けて外交攻勢に出る構えをみせている。先に訪朝した武大偉（ぶだいゐ）外務次官に続き、高位の戴秉国（たいへいこく）國務委員や王家瑞（おうかずい）党対外連絡部長らの特使として派遣して協議再開に向けた糸口を探り、金正日総書記から「復帰」の言質を得たい考えだ。

中国国営新華社通信は22日、南北高官会談が行われたことや、北朝鮮の弔問団が李大統領との会談を希望したことなどを相次いで速報した。同日付の中国共産党機関紙「人民日報」（海外版）も、故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が推進した「太陽（包容）政策」を踏まえ、「朝鮮半島に光が差すか」と、南北関係改善の機運を歓迎した。

人民日報は一方で、「朝鮮半島には、まださまざまな変数が存在する」などとも指摘。中国筋は「北朝鮮には対話の姿勢がみられるが、根本的に核放棄の意思があるのかどうか。最近の変化にも、演出があるとみなければならない。実利を重視し、緊張を高めた後に態度を軟化させ、協議に持ち込む狙いがあるのだろう。6カ国協議への復帰を拒む姿勢には大枠では変化がない」と慎重な見方を崩していない。

訪朝した武外務次官は、6カ国協議再開に向けて複数の案を北朝鮮側に提示したとみられている。しかし、中国筋によると、武外務次官では金総書記との会談は難しい。そのため、金総書記が会談に応じる可能性のある戴國務委員らを派遣することも視野に入れているという。

「6カ国協議の枠組みを維持する」というのが中国の基本姿勢だが、頭越しに米朝協議が進み、北朝鮮に対する影響力が低下することを防ぐために、米中朝3者協議の開催を検討す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

韓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의 회담이 실현될 경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재개를 향해서 외교 공세로 나올 태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 외무차관에 이어, 고위급 다 이빙궈 국무위원이나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등을 특사로 파견하여 회담 재개를 향한 실마리를 찾아 김정일 총서기에게 '북귀'에 대한 연질을 얻으려고 한다.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은 22일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한 것이나 북한 조문단이 이 대통령 회담을 희망한 것 등을 잇달아 속보로 전했다. 같은 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해외판)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포용) 정책」을 근거로, '한반도에 빛이 가릴까'라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운을 환영했다.

한편 인민일보는 '한반도에는, 아직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 중국 당국은 '북한에 대화 자세가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핵 폐기 의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최근의 변화에도 연줄이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실리를 중시하여 우선 긴장을 높인 후, 태도를 누그러뜨려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6자회담으로의 북귀를 거부하는 태도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라며 신중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 외무차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복수의 안을 북한 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 따르면 우 차관으로는 김 총서기와의 회담은 어렵다.

## 함께 보는 최근 북안 단신

### 北평양, 태양광가로등 시범 설치

○ 평양시 중심가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이 시범 설치됐다고 조선신보가 22일 전했다. 이 '태양빛 전기 가로등'은 평양시 창전네거리에 처음 설치됐으며 낮에 한번 충전 후 3일간 야간조명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소형 태양판 2개와 발광다이오드(LED)등, 자동조절장치, 축전지로 이뤄진 이 태양광가로등은 12m 높이에 설치된 50W LED등의 빛세기가 17럭스(lx)로, 같은 높이에 250W 나트륨등을 설치한 것과 같은 밝기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평양시 가로등사업소 기술집단이 개발한 이 태양광가로등의 성능이 확인되면 평양 거리에 전면 설치할 예정이다.

### 北평양 옥류관 새 메추리 요리 선보여

○ 북한 평양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이 메추리 요리를 새로 개발, 내달 1일부터 손님들에게 제공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3일 전했다. 메추리 튀기는 메추리를 포도술, 술탕 등과 함께 바삭하게 튀긴 것이며, 메추리 찹쌀 소구이는 찹쌀밥에 밤, 대추, 잣, 은행을 섞어 구운 것이다. 메추리 완자탕은 메추리살을 발라낸 뒤 양념을 묻혀 튀겨낸 완자를 탕에 넣어 만든 요리다. 옥류관은 메추리 요리 봉사를 위해 요리연구소를 만들어 실습과 품평회를 10여 차례 열었으며 "접객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대하겠는가에 대하여" 연구, 훈련도 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 연속기획 『북녘 산책』 《Ⅲ-1. 함경남도》



〈지도출처: nkchosun.com〉

함경남도는 1만 8616km<sup>2</sup>의 면적으로, 북한의 여러 도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인구 311만 3000명이 살고 있다. 동쪽은 동해에 면하며 북동쪽은 함북에, 서쪽은 평남·평북에, 남쪽은 강원·황해도에, 북쪽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중국 지린성과 마주한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4개시(함흥, 흥남, 신포, 단천)와 1개 구(수동), 1개 지구(금호), 그리고 15개 군(함주, 영광, 신흥, 장진, 정평, 금야, 고원, 흥원, 북청, 덕성, 리원, 허천, 부전, 락원, 요덕)으로 되어 있으며, 도 소재지는 함흥이다.

함경남도는 삼국시대에 고구려에 속해 있었으며, 발해시기에는 남경남해부에 속해 있었다가 발해가 멸망한 후 이 지역은 고려에 속했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발해의 5개 수도 가운데 한 곳인 남경남해부의 위치를 함남 금호지구에서 10km 떨어진 '함남 북청군 하호리 청해토성'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동경유원부의 위치도 그동안 학설로만 제시돼 왔던 '함북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 일대'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랜 기간 미해명 문제였던 발해 5경의 하나인 남경남해부와 동경유원부의 위치를 확정한 것으로, 중국의 동북공정등으로 역사문제가 어지러운 이 때에 북한이 꾸준히 발해사 등 역사연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북한 각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독특하지만 북한의 '꿈'이 배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함경남도에는 '소금'이라는 아이가 있다. 1999년 10월 완공된 광명성제염소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생일상까지 차려주기도 했다. 소금이 매우 귀한 상황에서 광명성제염소가 제 역할을 다해 북한의 경제 부흥에 큰 몫을 하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금야군 광덕리 금야만에 있는 광명성제염소는 북한이 동해

안에 처음 건설한 대규모 소금 생산기지로 바닷가 80여리에 독을 쌓고 콘크리트치기를 해 건설했는데 대규모 염전과 수백 개의 구조물, 양수장, 동력망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제염소는

총면적이 300여정보로 소금 생산능력은 연간 수만에 이르는 북한의 '현대적인 소금 생산기지'이다.

개마고원은 면적 약 1만 4300km<sup>2</sup>, 평균높이 1,34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으로, '한국의 지붕'이라 부른다. 량강도의 중부·남부·서부와 함경남도의 북서부, 자강도의 동부 지역에 걸쳐 있는 고원으로 함경남도에는 장진군 일대의 장진고원, 부전군 일대의 부전고원이라 부르기도 하는 곳이 개마고원에 속한 지역이다.

함경남도의 기후는 같은 도 안에서도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함경산맥을 기준으로 하여, 북사면과 남사면의 고원지대, 그리고 동해 연안지대의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북사면의 고원지대는 대체로 개마고원이 되는데, 장진·삼수(三水)·갑산 등지가 이에 속한다. 이 지역은 함경산맥이 가로막아 동해의 영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시베리아·중국 동북부에서 들어오는 추운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겨울철에 몹시 춥고, 곳에 따라서는 여름에도 그리 덥지 않다. 남사면 고원지대는 낭림·함경산맥으로 인해 편(Föhn) 현상도 있고, 또 동해의 영향을 받아 특수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북사면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다. 동해에 면한 이원(利原)·북청·함주·흥원·정평(定平)·영흥 등은 바다의 영향으로 연평균기온이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 다소 높다. 기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평균 초빙(初氷)을 보면 장진이 9월 28일, 신흥이 10월 29일, 원산이 11월 10일로서 각 지대가 약 1개월씩의 차이를 보인다.

문화재로는 석왕사 응진전(북한국보 147)·호지문(북한국보 148), 진흥왕 황초령순수비(북한국보 164)·마운령순수비(북한국보 208), 안변의 가학루(북한국보 247)가 있으며, 차일봉과 북수백산의 고산식물군(북한천연기념물 118), 풍산전(북한천연기념물 128), 해산의 담비잘(북한천연기념물 57), 문천의 엄나무(북한천연기념물 68), 부전고원의 부채붓꽃(북한천연기념물 119)등이 이 지역의 천연기념물이다.

흥남시의 마전유원지가 함경남도에서 가장 이름난 명승지이다. 동해안을 따라 길이 6 km, 너비 50~100 m의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천주봉(562m)을 중심으로 반달 모양을 이룬 구룡성산지가 유원지를 둘러싸고 있다. 해수욕장지구는 길이 3 km로 주변에 잔디밭·해당화밭·소나무숲이 있어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북한이 인류건축문화의 절정 이라고 극찬하는 올해 7월 27일 준공된 마전호텔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호에서는 함경남도의 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 추천 논문

## 김정일 건강 악화 이후 북한의 통치방식 변화와 대내외 정책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은 2008년 8월 뇌졸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건강을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선군정치식 통치구조와 통치방식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정치체제는 '선군정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하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는 과거와 구별되는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도화된 통치가 아닌 김정일의 인적통치, 당적지도가 약화되고 당을 거치지 않는 김정일의 직할통치, 주요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횡적연대가 차단되는 분할통치 등이 선군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은 정책결정과정이 김정일 1인에게 집중되는 특성상 권력의 운영에 김정일의 역할이 필수불가결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권력운영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3남 김정운이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둘째, 김정일의 업무공백을 대체할 인물이 필요하였으며 비공식적이거나 2인자의 역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국방위원회가 강화되어 집체적 지도원칙의 성격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치방식의 변화는 우선, 대내적으로 체제 결속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혁명적 대고조'와 '150일 전투'라는 구호아래 '힘찬 전진'을 외치고 있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단장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내각에 수도건설부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대남 정책에 있어서는 군사적 협박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문제등 대남정책을 통전부가 아닌 군부가 직접 작전개념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통치방식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대외정책일 것이다. 대외정책부분도 외무성이 아닌 군부가 주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부의 선택은 대외개방보다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일단의 체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현재 북한은 지방보다는 중앙을, 일반 주민보다는 간부를, 외교와 무역보다는 군과 공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주도 하는 것은 김정일 건강악화 이후 변화된 통치구조 속에서 내각, 통전부와 외무성을 제치고 대내외 정책에서 영향력이 강화된 군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4.jsp](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4.js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퀴즈로 풀어가는 北!

-함경남도 금야군 광덕리 금야만- 동해안에 처음으로 대규모 소금 생산기지를 건설하였는데요, 바닷가 80여리에 독을 쌓고 콘크리트치기를 해 건설했는데 대규모 염전과 수백개의 구조물, 양수장, 동력망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완공된 이 제염소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소금'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이는 소금이 매우 귀한 북한 상황에서 이 제염소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 총면적이 300여정보로 소금 생산능력은 연간 수만에 이르는 북한의 '현대적인 소금 생산기지'인 이 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주간 북한경제 동향 제 53호, 연속 기획 『북녘산책』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를 [purple0414@krlove.net](mailto:purple0414@krlove.net) 으로 8월 30일 일요일 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세계 최초로 ISO 22000 국제인증 받은 『신일염전』에서 생산한 명품소금, 『513 천일염』을 보내드리겠습니다.